

렘넌트의 삶

신명기 6:4-5

김형길 목사님

현장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삶에서 복음이 지식화되고,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보게 된다. 그래서 오늘 렘넌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한다. 사역하다 보니 여러 현장을 마주하게 되었다. 목회자 자녀들을 두고 심리검사를 했더니, 외부 전문가가, 이런 그룹은 처음 봤다고 했다. 대단히 높은 자존감과 대단히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기도수첩이 뭐냐 해서 왜 그나마 했더니, 기도수첩이라는 책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어느 집에 다락방을 하러 갔는데, 엄마와 딸이 서로 욕을 하면서 싸우는 것이다. “왜 데리고 왔냐, 안 만난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도 한 번은 만나 봐야 하지 않냐.” 나를 앞에 두고 (웃음) 새벽 다섯 시만 되면 엄마가 와서 귀에 대고 기도수첩을 읽어준다는 것이다. 애가 얼마나 무섭겠냐. (웃음) 그래서 그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기도수첩을 찢어버렸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아이가 지금은 렘넌트 교사로 잘 사역하고 있다. 우리가 렘넌트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는가. 신명기 6:4-5, 이런 렘넌트를 키워야 하지 않겠냐. 유일하신 여호와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렘넌트다. 이 사역이 너무 중요하다. 지금은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시대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최고 기적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담아두셨지 않나. 그런데 이 비밀은 사람의 노력, 지식을 가지고는 결코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나. 열두 가지 문제가 울무요 함정이요 틀인데, 세상과 사람이 무엇으로 이것을 벗어나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21가지 전도자의 삶으로 바꾸셨지 않나. 인생 최고의 기적은 그리스도 만나서 구원받은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절대목표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이 렘넌트다. 어떤 사람들이 당대 세계복음화를 말하던데, 나는 웃었다. 삼대 세계복음화다. 선대, 당대, 후대가 함께 이루어나가는 것이 세계복음화다. 우리가 걷는 길은 선배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던 길이고, 우리가 걷는 길을 또 후대가 걷게 될 것이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이게 참 어렵다. 그래서 렘넌트 사역자로서 고민하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한다.

1. 렘넌트의 믿음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겠는가. 나는 신앙의 균형이 세 가지, 지성의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지식, 감정, 의지 곧 삶이다. 이 세 가지가 올바르게 균형이 맺어지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지식, 복음성구와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렘넌트에게 복음을 심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복음을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심으면 안 된다. 복음은 행복이고 생명이고 사랑 아닌가. (1)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행복 속에 아이들이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우리는 불안정한 삶을 살지 않나. 그런데 말씀 속에 거하면, 그리스도 안

에서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다. 모든 지식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행복,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복 속에 거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작정 외우고 암송하는 것을 넘어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이것을 네 자녀에게 가르쳐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가.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많은 렘넌트들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알면, 하나님의 마음과 복음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점이고 확정 아닌가. 아이들이 복음에 대한 수많은 지식이 있어도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모른다면 얼마나 가슴아픈 일인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복 속에 있어야 한다.

(2) 그래서 지식이 머리에 머물지 않고 심장을 뛰게 하는 이유가 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지식과 감정이 하나가 될 때,

(3) 삶은 자연스럽게 회복된다. 전도, 선교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머물지 못해서 말하게 되는 것이다(렘20:9). 우리 렘넌트의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에 마땅히 삶을 드리도록 렘넌트를 키워야 되겠다. 우리 렘넌트들이 사실은 삶에서 많은 것을 놓치고 있지 않나. 어떤 여학생이 번비로 3주 동안 화장실을 못 갔다는 것이다. 그래서 농담으로 말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막을 자가 없다. 네게 문이 열려져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가서 화장실에 앉아서,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삶을 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닫힌 문을 열어 주세요, 약으로도 식이섬유로도 안 되는 닫힌 문이 열리게 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폭발적으로 문을 열어주셔서, 자기 말로는 불신앙까지 빠져나갔다는 것이다. (웃음) “그렇지, 너는 처음으로 경험했을 거야.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지만, 그 믿음은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렘넌트는 방법, 지식,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너의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실 거야. 그 문이 처음으로 열렸지만, 그 문은 현장에 너무 많이 있어.”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가 하나님의 존재는 믿으나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않으니 실패한다고 한다. 이 시대에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렘넌트로 살아가야 한다. 이 믿음은 엡2:8,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가 믿음이 되도록 부모로서 기도해야 할 것이다.

2. 렘넌트의 삶

이 믿음을 가지고 렘넌트들이 삶을 살아간다. 나는 두 가지를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보내셨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다.

(1)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다. 로마서 8:15에, 우리는 원래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야 하는데,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با,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 이게 기적이다. 우리는 자녀가 되었다. 자녀는 마땅히 아버지의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한다.

(2) 하나님은 이 시대에 렘넌트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별해서 부르셨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전도자로 보내셨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복음 가지고 세상 살리라고 보내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각인, 뿌리, 체질 시켜야 할 줄 믿는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믿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 세상 나가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리석다,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그 흐름을 뒤바꾸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부모님을 만날 때는 세상과 사람의 기준으로 보고 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깨닫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은 우리 램넛트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지켜낼 것이다. 우리 램넛트가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 사람의 기준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자신을 넘어서며, 환경과 사건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이 시대의 램넛트야. 하나님은 너를 전도자로 부르셨어. 너에게 심겨진 복음은 너의 삶을 이끌 거야.” 우리의 연약과 무능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그 무엇도 못 막는다. 개가 짊어도 기차는 가는 것이다. 사실 두 가지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나? 그렇듯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으로 자녀와 후대에게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오늘을 걸어가도록 도와야 할 줄 믿는다.

(3) 그래서 3오늘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 붙잡았어? 기도했어? 전도계획 뭐야?’ 하는 식으로 되면 안 된다. 3오늘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기도다. 전도, 선교는 하나님이 마음에 부으시는 은혜다. 그러면 우리 램넛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음을 심어야 할 것이다.

3. 램넛트의 여정

그래서 우리 램넛트들이 결국 램넛트의 여정,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야 한다. 앞으로 시대는 더 어두워질 것이다. 더 혼란해질 것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목표는 성취될 것이다. 어두울수록, 혼란할수록 오직의 복음은 더 선명하게 빛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절대목표의 길을 걸어가는 램넛트에게 심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1) 사람을 살리는 인성이다. 잠언 25:13이다. 충성된 사자는 얼음냉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했다. 램넛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모든 사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을 살리는 인성 가진 램넛트로 자라나야 할 것이다. 지금 시대는 역리의 시대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사용하며 물질을 사랑하는 시대다. 이 인성이 무너져 버렸다. 우리 램넛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자라야 하지 않겠나. 배려하고 이해하고 함께 하고 사람을 살리고, 말 한 마디도 그러면 우리 램넛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야 한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다.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변화시키신다. 성령께서 진짜 주인 되시면 변화시키신다. 예수 믿었는데 사람이 바뀌는 것이다. 성령께서 사람을 살리는 인성을 가진 아이로, 불가항력적인 은혜

를 베푸시도록.

(2) 세상을 살리는 지성이다. 고린도전서 10:31이다. 램넛트가 공부하고 도전하는 모든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놀아도 웃어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공부의 모든 목적이 무엇인가. 서밋이 무엇인가. 1등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따라 도전하는 자가 서밋 아닌가. 그래서 모든 도전과 공부의 목적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한다. 대단한 순간을 주께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사소한 순간을 주께 드리지 못하는 자는 대단한 순간도 드리지 못한다. 대소사, 모든 삶의 목적, 일의 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3)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성이다. 베드로전서 1:24-25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다. 요한삼서 1:2의 말씀도 마찬가지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나. 어떤 사람은 말했다. “내게 가장 두려운 일은 내 생명, 명예, 재산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머물지 않는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영성은 하나님 앞에 무릎꿇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꿇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짧다. 지나가고 썩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나가는 인생을 지나가는 것과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마라, 영원한 것이 있다, 너희가 전해들은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지나갈 것, 썩어질 것에 가치와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친구들은 히브리서 11:38,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이 모든 것들, 이 램넛트의 삶은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자녀의 양육은 입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 후대들이 무릎꿇는 아이가 되게 하려면, 부모부터 먼저 무릎꿇어야 한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야기다. 초등학교 때였다. 아이가 현금 시간에 빈손을 현금쟁반을 올리더라는 것이다. 왜 그랬느냐고 했더니, “저는 아이라 돈이 없어서 저 자신을 드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10달러를 주면서 매주 1달러씩 현금하라고 했다. 그런데 다음 주에는 현금을 하더니 또 빈손을 드렸다고 한다. 왜 그랬느냐 했더니, “저는 아이라서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10달러를 전부 드리고 저 자신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이런 램넛트, 이 시대에 전도자로 쓰임받을 언더우드 같은 램넛트, 류광수 목사님 같은 램넛트, 자신을 드리는 램넛트를 축복하신다. 나도 그랬던 것 같다. 아무 것도 모르면서, 어릴 때 멋모르고 고백했던 것 같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 인생을 드릴 때, 후대들이 그 길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램넛트의 믿음, 삶, 여정을, 램넛트를 가르치는 교사와 부모들이 먼저 걸어가야 한다. 그 길을 걸으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후대가 그 길과 발걸음을 따라 걸어오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세계복음화는 선대, 당대, 후대가 함께 이루어나가는 것이다. 나도 선배 전도자의 외로운 걸음을 따라간다. 그리고 더 강력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우리 선대가 걸었던 걸음을 걷게 될 것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주역이 참사랑교회에서 자라나는 소중한 램넛트가 되기를 축복한다.